



지금의 우리들은 高度한 技術革新이 지배하는 社會와 産業情報化時代의 세찬 波濤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科學과 新技術(發明)의 발거름이 빠르고 높이 치솟아 가는 때도 일찌기 없었다.

이로해서 經濟社會發展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거대한 變化를 가져다 주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多様하고 緊密하게 聯關性을 맺었을 때도 일찌기 없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1世紀를 눈앞에 두고 줄다름쳐 가는 文明이야말로 科學과 技術, 發明의 물줄기이며 한나라의 産業技術, 즉 보다 새로운 新技術(新規性·進歩性)이 짙은 裝置, 方法등의 發明이 곧장 産業力과 企業繁榮의 起爆劑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어느 나라고 發明의 重要性을 높이 認識하고 이를 獎勵·保護하는 制度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時代를 여러가지로 表現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評價되고 있는 것은 技術革新을 밀바탕으로 하는 資源開發과 頭腦開發, 産業技術의 情報化時代라고 集約시켜 認識해도 좋을 것이다.

發明이 産業發展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거창하기만 했다.

1765年 英國의 「제임스·วัต트」가 石炭을 燃料로 해서 물을 蒸發시켜 水蒸氣의 膨脹壓力을 이용한 蒸氣機關發明에 이어 1769年 英國의 「아크라이트」가 發明한 水力을 動力으로하는 紡織機들은 18世紀事業에 찬란하게 불꽃튀긴 産業革命의 導火線이었으며 人類最大의 技術革新에의 原動力을 이루어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第1期인 1788~1815年(27年間)사이에 都市近郊農村의 開發을 촉진시켰고, 1843~1872年(29年間)에는 鐵鋼과 鐵道網의 發達로 해서 沿邊地域의 開發을 서둘게 했다.

1897~1920年(23年間)사이에 電力, 電信, 電話, 自動車, 造船, 航空機의 新技術開發은 地球上 모든 곳을 開發시켜 갔다.

第4期라고 할수 있는 現代에 접어들어서는 技術開發의 領域은 電子工學, 高分子化學, 原子力, 海底와 宇宙開發의 깊고 넓은 방향으로 번져 産業發展의 領域 역시 끝없이 따라나서게 했다.

이렇듯 技術開發의 과정은 그 第1期에서 第2期에 이르는 동안 人間의 勞動力을 機械로 바꿔 놓는데 큰 意義를 갖는 特徵이 있었다고 볼수있겠으며, 第4期の 性格은 보다 科學技術의인 頭腦資源開發에 주력한 방향의 新技術(發明)革新에 쏠리고 있음을 알수있게 한다.

이렇듯 技術創造時代 깊숙히 들어선 오늘날의 企業은 技術開發에

서 우리나라는 보다 새로운 製品開發에 매달려 競爭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배겨날 길이 없게 되었다.

즉, 發明은 産業의 生産手段이요, 生産品의 原料的인 概念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獎勵·保護하는 길만 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길 海外市場開拓은 마치 輸出戰爭을 연상케 한다고들 말한다.

發明이 發明獎勵

이와는 달리 外國에서는 特許戰爭이란말로 産業界와 發明界(技術界)를 몹시 자극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全世界는 新技術에서 展開되는 發明競爭에서 特許戰爭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用語를 처음 퍼뜨린 사람은 英國의 ICI(임피어리얼) 化學工業會社의 社長이다. 그가 第2次大戰을 겪은후 재출발하기 위해 創案해낸 「캐치프레이즈」였다.

당시 英國은 戰勝國이면서, 壓力을 빨리 회복시키려는 政策手段으로 「科學+新技術(發明)=輸出」이라는 標語를 채택하고 「輸出은 보다 많이, 輸入은 보다 적게」(More export, lessimport)라는 말을 써서 新技術開發과 輸出振興에 보다 강력한 政策을 쓰기 시작했다.

頭腦開發과 應用이 아니고는 輸出戰爭에서 살아남을 新武器를 마련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政策의 일환으로 輸出會議을

설치했는가 하면 1929년「프레밍」에 의해 「페니실린」이 자기나라에서 發明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工業化를 美國에 부탁해야 했음을 몹시 가슴아프게 여긴 나머지 1944年 發明開發法을 制定, 이듬해엔 100億 원에 해당하는 巨額을 投資하여 研究開發公社의 설립을 서둘러 했다 는 것이다.

그 결과가 特許網을 世界에 펼치고, 商品의 海外進出에 힘을 쏟고

있으며 產業界 전체의 技術水準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은 海外輸出競爭에서 더욱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달리는 나라의 企業家들이 新技術·新商品開發을 위해 「勇氣 있는 開發投資」「效果 있는 失敗」를 企業繁榮의 열쇠로 삼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發明獎勵에 「勇敢한 奴隸」가 되는 까닭들이 무모한 企業經營精神이 아님을 짐작케

開發하기 시작한 螢光灯을 비롯, 電子複寫機 「제록스」 세로테프, 아크릴纖維, 나이론, 連續熱間壓延 DDT, 후래은 冷凍劑, 合成洗劑, 실리콘, 폴리에치렌, 테리린, 트랜지스터, 四에칠鉛, 無織布, 디젤電氣機關車, 네오푸렌, 텔레비전, 듀코락카, 메타크릴酸 樹脂 등이 企業體안에서의 職務發明 성과로 지적되었다.

이와는 對照的인 位置에 서있는 「아마튜어」 發明家들의 企業과 社會에 미친 성과를 간추려 社會發明의 價値를 評價받게 했다.

에어콘, 自動變速, 베크라이트, 불렌, 石油의 接觸分解, 세로판, 구름鍍金法, 시네라마, 綿織機械, 싸이크로톤, 電氣收塵, 電子顯微鏡, 자이로컴파스, 硬化油, 헤리콥터, 인슈링, 제트엔진, 코닥크필름, 磁氣錄音, 페니스링, 動力操航, 라더오, 安全面刀, 自動발목 時計, 스트랩토마이신, 즐즈어織機, 合成偏光子, 티탄, 티파스너등을 가르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發明 가운데는 순수한 「아마튜어」라기보다 企業研究機關이 아닌 學術研究機關의 開發결과에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新技術 開發에 따르는 發明들은 着想的인 具體化에서 特許라는 「코스」와 企業過程을 밟아 새로운 商品, 새로운 產業으로 限없이 變어 人類에 크나큰 惠澤을 던져 줌으로서 豐饒한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 해가고 있다.

아름다운 끝없이 波及效果를 물고 올것이 분명한 發明獎勵施策은 國內 產業發展에 크게 寄與하며 가속하게 벌어져 가는 輸出戰爭의 新武器를 生産해내는데 절대불가결의 緊要性을 지니고 있음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〆>

〈編輯室〉

産業發展에 미치는 影響 施 은 産業發展에 크게 寄與

있으며 業界와 협력해서 外國發明으로 보호되는 外國特許의 上陸을 막아내는 등 特許攻防戰에 寄與하는 體制를 갖추었다.

우리나라 產業界가 輸出싸움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트려면 역시 무엇보다도 緊要한 것은 新武器가 있어야 한다.

보다 새로운 技術, 보다 새로운 製品보다 새로운 「디자인」開發을 말하는 것이다.

發明思想의 獎勵는 곧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까닭은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發明獎勵에서 얻어지는 特許技術의 産業化에 있다고 믿는데 있다.

發明獎勵로해서 特許의 길로 변어나는 效果는 新商品의 開發은 물론 既存技術의 改良을 가져와 品質의 向上과 「코스트다운」을 노릴 수

하고도 남음이 있다.

繁榮의 大路를 줄다듬쳐 나아가는 企業들은 提案制度를 채택하고 職場發明—職務發明獎勵에 필사적인 힘을 결고있다. 그뿐 아니라 社外發明採擇으로 해서 驚異的인 業績을 올리고 있다.

이중에는 研究室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지만 意外에도 많은 「아마튜어」 發明家들의 虛構性이 아닌 創案에서 얻어낸 發明들이 우리들 生活周邊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두크스」「소야」「스태이란만」의 세사람이 著述한 「The Sources of Invention」에서 20世紀의 重要發明 60餘種을 간추려 產業界와 個人生活에 놀랄만한 寄與度를 評價하고 있었으며 그중 企業體의 新技術開發에서 얻어진 發明과 國外發明들이 企業化에 貢獻한 「리스트」를 公開해 주고 있다.

「제너럴·엘렉트릭」 (G·E)이